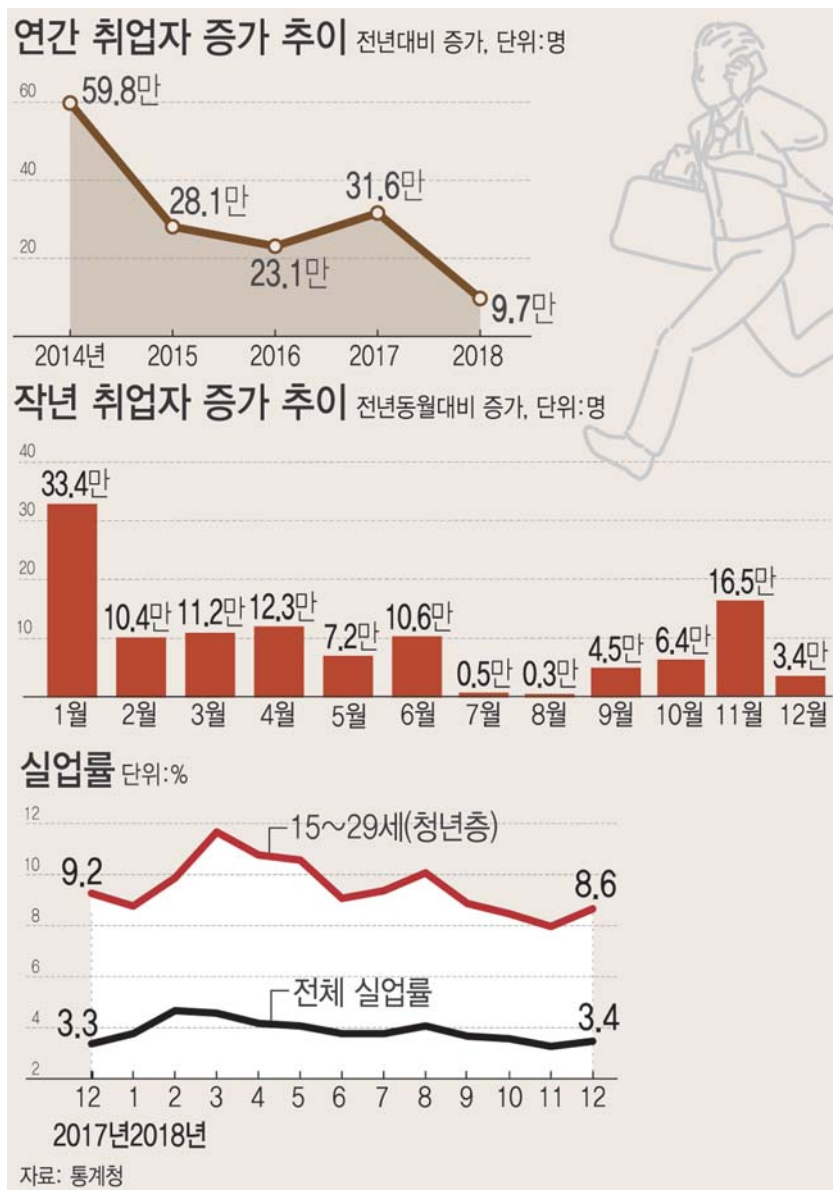


작년 취업자수, 10만명대 아래로 추락



■ 통계청, 작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수 증가, 1년 전 비 9만7000명 증가 그쳐
실업자 3년째 100만명...2000년 이래 최대 규모

로 올라섰지만 12월(3만4000명)에 재차 고꾸라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지역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분야 구조조정 등이 겹쳤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5000명·6.5%), '정보통신업'(5만5000명·7.0%), '농림어업'(6만2000명·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000명·4.9%) 등에서 증가했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7만2000명·-1.9%), 숙박 및 음식점업(-4만5000명·-2.0%)에선 감소했다. 경기 부진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까지 겹쳤다고 빈 과장은 설명했다. 특히 이 업종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에 민감한 업종이기도 하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000명·-4.6%), '교육서비스업'(-6만명·-3.2%)에서도 줄었다.

'벤처는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도 5만6000명(-1.2%)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40대에선 11만7000명이나 줄었다. 지난 1991년(-26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30대에서도 6만1000명 줄어 들었다.

중상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5000명(2.6%)은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14만1000명·-2.8%)와 일용근로자(5만4000명·-3.6%)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3000명(2.7%) 늘었다. 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2.1%), 무급가족 종사자는 9000명(-0.8%)이 감소했다. 과당 경쟁에 취약 부진으로 고용원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또 100만명을 넘겼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실업자 규모가 100만명을 넘긴 건 2016년 이후 벌써 3년째다.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개선됐다.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6%로 1년 전과 같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11.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는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2.6%였다. 연간으로 22.8%를 나타내 통계 집계로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보여주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0.6%) 증가했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9만3000명으로 2만4000명(3.6%) 늘었다.



광주 월산동 '반도유보라' 623가구 내일 일반에 분양

반도건설은 오는 11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건설하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35~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면적 59~84㎡ 62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하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도록 4 Bay 설계(일부세대)를 도입하고, 알파룸, 위크인 드레스룸, 팬트리, 수납공간 특화 등 각 타입에 맞는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다.

전용 74㎡는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한 'C'자형 주방설계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 안방과 연계된 부부욕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침실 1, 2의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전용 84㎡ 타입은 현관, 주방, 욕실 등 곳곳에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침실공간은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서재, 작업실, 놀이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휘

지하 3층~지상 27층 11개동, 전용면적 35~84㎡
3.3㎡당 분양가 1050만원...16일 특별공급 시작

반도건설은 KT와 인공지능(AI) 아파트 사업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KT의 '가가지니 버디' 단말기를 제공하며 대화형 발화 인식 기능으로 입주자들은 조명, 난방 등 빌트인 기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호출, 공지사항 조회 등 공용부 기능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음악부터 실시간 뉴스 검색까지 도와주는 홈 콘텐츠, 번역과 어린이 영어콘텐츠를 제공하는 키즈교육 서비스, 스케줄과 대중교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KT 홈비서, 정보기와 주식정보를 알려주는 쇼핑·금융 서비스, 가전·조명·난방 등도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트니스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고,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한다.

광주지역 최대 규모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이 인접해 있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 광주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위치해 있으며 양동초등학교, 무진중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050만원 선에 책정될 예정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일정은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를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구 쌍촌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지역공감 마케팅조성지원사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가계 여윌돈 11조 제자리...집 사느라 살림은 팍팍

정부의 순자금운용은 확대...1년만에 최대치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했다. 여전히 자금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가계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1조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수치로 각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에는 가계에서 빌린

돈이 줄었으나 주식과 펀드로 굴린 자금도 함께 빠져 여윌돈이 늘어나지 않았다.

가계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규모는 각 25조1000억원, 3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5조000억원, 2조4000억원씩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신규 분양 물량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 자금이 여전히 주택 부지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

년에 비해 순자금운용이 적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주거용 건물건설(명목·원계열) 규모는 3분기 28조1000억원으로 예년(16조8000억원)에 비해 많다.

가계와 달리 일반정부의 순자금운용은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 1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3조1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7년 3분기(18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통상 정부의 여유자금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줄었다가 하반기에 확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